

Taxonomic Notes of Seven Subspecies of *Lycaena dispar*

Haworth (Lepidoptera, Lycaenidae)

Yang-Seop Bae and Young-Joo Song

Department of Biology, College of Natural Sciences, University of Incheon, Incheon 402-749

국제자연보존연맹(IUCN) 멸종 위기종의 적색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*Lycaena dispar* Haworth는 날개 상부에 주홍빛의 광택이 나는 매우 아름다운 빛깔을 띠고 있다.

전 세계적으로 *Lycaena*속은 46종이 기재되어 있고, 분포는 매우 국지적이다.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*L. dispar aurata*의 경우도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일대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왔으나, 본 연구를 통해 채집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경기만 일대의 도서 지역인 영종도, 용유도, 대부도와 경기도내 일부 지역인 시흥시, 안산시 등지에서 채집되었다. 최근 들어 이들의 주 서식지인 경기도 연안의 도서 지방 개발이 급속화됨에 따라 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.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이들의 생활사 및 형태적 특이성을 밝히고, 나아가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*L. dispar aurata*를 포함해 *L. dispar*의 7아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. 이들 7 아종의 분포지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. *L. dispar dispar* (England), *L. d. festiva* (W. Siberia), *L. d. daurica* (S. Zabaikalye), *L. d. aurata* (Amur and Ussuri), *L. d. dahurica* (Transbaikalia, W. Amur), *L. d. rutila* (S. Europe, Caucasus and Transcaucasia), *L. d. batava* (Germany).

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분포하는 *L. dispar aurata*외에 6 아종의 경우 문헌기록만을 참고하였으나, 앞으로 *L. dispar*의 전 아종에 대한 표본 확보와 이를 이용한 생식기의 관찰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. 또한 이 종의 대량번식을 통하여 정서 곤충으로 개발한다면 그 활용 가능성과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.